

예산정국 '선거제 개편' 변수 급부상

4개 상임위 심사... 농식품부, 쌀값·비축미 자료 놓고 설전 바른미래·평화당·정의당 선거제 개편 연계 선언...진통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2일)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26일 3개 상임위 소관 부처의 예산 심사까지 모두 끝낸다는 계획이다.

이날 심의 대상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환경노동위·교육위 소관 부처의 예산안이었다.

이날 오전 예산소위 회의는 전날 밤 더 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에 대해 "비정하다"고 한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면서, 애초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시작됐다.

전날 밤 정부 측이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예산에 대해 원안 유지를 요청했지만 송 의원이 감액 의견을 내자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비정하다"고 한 게 발단이 되었다.

이날 오전 한국당 소속 안상수 예산소위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저녁 송 의원과 관련해 오해될 만한 발언이 있었으나, 송 의원이 대응적인 차원에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밝히면서 회의가 속개됐다.

이날 예산소위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예산 심사에서 여야는 '북한에 쌀을 퍼줘 쌀값이 올랐다'는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창고별 쌀 비축량 자료 제출 여부 및 농촌 유휴시설 활용 창립 지원 예산 등을 두고 맞섰다. 또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심사에서는 일자리 예산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예산소위는 이날 4개 상임위 소관 부처들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고 27일에는 아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가 될 끝내 예정

위로 넘어오지 않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행정안전위·보건복지위 등 3개 상임위 소관 부처의 예산 심사까지 모두 끝낸다는 계획이다.

이어 심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빠르면 28일부터 '소소위'를 가동해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쟁점 사업들에 대한 심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법적 근거도 없고 속기록도 남지 않아 '밀실 회의'라 불리는 소소위에 서 올해도 '깜깜이 심사'를 되풀이할 것이 시뮬레이션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일정은 이미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여야 원내지도부와 예결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작년에도 소소위는 1주일 정도 걸렸던 데다, 올해는 일자리 예산·남북협력사업 기금·정부 특수활동비 등 핵심 쟁점들은 물론이고 여야 간에 조금이라도 이견이 있는 사업들이 무더기 보류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 여야가 28~30일 사흘간 소소위 심사를 끝내고 예결위에 심사 권한이 부여되는 마지막 날인 30일 전체회의를 연다면, 12월 2일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같은 일정은 이미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여야 원내지도부와 예결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작년에도 소소위는 1주일 정도 걸렸던 데다, 올해는 일자리 예산·남북협력사업 기금·정부 특수활동비 등 핵심 쟁점들은 물론이고 여야 간에 조금이라도 이견이 있는 사업들이 무더기 보류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3개 정당이 예산안과 선거제 개편을 연계하겠다고 선언, 막판으로 갈수록 더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12월1일부터는 예결위의 심사 권한이 없어지며, 다음 날 본회의에 정부의 예산안이 원안 그대로 자동 상정된다.

따라서 여야는 결국 예년처럼 소소위 심의와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을 거쳐 합의된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려 수정 통과시키는 '변칙'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의 예결소위 위원은 "예결소위 내부에서는 빨라도 12월7일 본회의에서 예산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이해찬 "남북철도 조사 의미 있는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철도 공동조사 제재 면제에 대해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준 "계파 대결 용납 않을 것"

한국당 비대위 회의...내년 2말3초 전대·룰 변경 최소화

자유한국당은 26일 내년 2월말에서 3월초에 전당대회를 차질없이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전당대회 경선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변경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위는 12월 첫째주 월요일 소집해 약 한달간 활동기간을 끝낸 후 비대위에 보고하고 전국위를 소집해 처리한다"며 "12월 말에서 1월초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헌·당규 개정안이 전국위를 통과하면 그 안을 갖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45~50일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당헌·당규개정위의 논의 분야와 관련 "우선 새로운 노선과 가치에 대한 당헌·당규 반영 방안을 논의한다"며 "이 부분은 비대위 안의 가치소위와 정책소위가 자문위로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대룰과 지도부제 및 당대표 선출 체제를 논의하는데 룰에 대해선 급급해 손대지 않을 방침"이라며 "다만, 당내 광범위한 의견수렴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책임당원 권한과 역할도 논의할 것"이라며 "탄핵과 대선 과정에서 당 소속세가 워낙 심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당원 규정 등에 대한 완화 작업을 한 바 있는데 그런 결과들이 당의 이완으로 나타나게 됐다. 책임당원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도 당 원래 정상 체제로 복귀하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원권 정치 부분에 대해선 "원내대표 선거나 당내 문제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야기하는 것을 가급적 피할 것"이라며 "당헌·당규 개정작업과 묶어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대결 구도를 다시 살려서 득을 보려는 시도들이 있는 것 같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심지어 분당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다. 그런 시도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나름대로 판단 기준으로 조직강화 특별위원회의 결정과 관계없이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다"며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당협위원장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당원권 정치" 규정과 관련해 "지금은 검찰이 기소하면 당원권이 정지된다. 검찰이 당원권 정치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있을 수 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현 규정)이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 당원권 정지를 풀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바른미래 호남 민심 잡기

전남·북서 최고위·광주 완성차 공장 예정부지 방문 등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광주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 합작공장 예정부지를 찾는 등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선다.

바른미래당은 26일 전북·전남지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등 27일까지 1박 2일로 호남 일정을 진행한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이준석·권은희·김수민 최고위원 등은 26일 오전 전주에 국립농업과학원 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고사 위기에 처한 한국 농업의 미래를 논의했다.

이어 지도부는 전북도청에서 예산정책 협의회를 갖고,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 '새만금 태양광' 계획이 발표된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새만금산업단지 현안과 재생에너지 간담회를 했다.

바른미래당은 다음 날인 27일 오전에는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참배한다.

또, '광주형 일자리'가 들어설 합평군 빛그린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정부가 '사회 통합의 선도적 모델'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광주형 일자리의 해법을 모색하고, 기자간담회도 연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도부 광주 방문에는 광주에 지역구를 둔 김동철·박주선 의원도 함께한다.

/오광복 기자 kroh@kwangju.co.kr

문 의장 "예산안 내달 2일 처리하자" ... 한국당 '난색'

교섭단체 지도부 회동

문희상 국회의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한식당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 처리를 당부했다.

이날 회동은 문 의장이 격주로 주재하던 정례회동 대신 제안해 성사됐다. 지난 21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 이후 별다른 안건이 추가되지 않았다고 밝힌 때문이다.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유재욱 원내수석부대표,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다. 각 당 원내대변인들도 배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딱 한 마디만 하겠다. 내년도 예산안은 꼭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법정시한인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여야가 금요일인 11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상태지만, 나흘 만에 예산심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일요일인 12월 2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것이다.

문 의장은 "19대 국회에서 제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 처음으로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

킨 적이 있다"며 "저는 기한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의 법정 기한 준수 의지를 드러내는 차원에서라도 2일 본회의 개최에 찬성한다"며 문 의장을 거들었다.

그러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도 "소위에서 예산심사가 다 안 끝났는데, 휴일에 본회의를 소집하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줄다리기로 예산심사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기한 내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전날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방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예산심사와 연계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한 대화도 있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 3당이 단일한 안이 있느냐"고 돌발 질문을 하자 권은희 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 2월 제안한 안이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에 문 의장은 "저도 선관위 안에 동의하는데, 1·2당이 전향적으로 잘 받아서 합의하면 좋겠다"며 "선거제도 개혁은 어쨌든 반드시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